



Pink Palette

스토리 관련 문서



TABLE OF CONTENTS

문서 개요	3	
프롤로그	4	
ACT.1 바소스, 숲의 왕국	거짓된 숲의 마리오네트	5
CHAP.1 바람이 속삭이는 숲	5	
CHAP.2 그늘이 시작되는 곳	5	
CHAP.3 그루터기들의 묘지	5	
CHAP.4 기다리는 꽃의 화원	5	
ACT.2 리아네, 호수의 나라	5	
CHAP.1	5	
CHAP.2	5	
CHAP.3	5	
CHAP.4	5	
ACT.3 에리모, 사막의 도시	5	
CHAP.1	5	
CHAP.2	5	
CHAP.3	5	
CHAP.4	5	
ACT.4 파이톤, 얼음의 왕국	5	
CHAP.1	5	
CHAP.2	5	
CHAP.3	5	
CHAP.4	5	



TABLE OF CONTENTS

ACT.5 피에르, 불의 나라	5
------------------	---

CHAP.1	5
--------	---

CHAP.2	5
--------	---

CHAP.3	5
--------	---

CHAP.4	5
--------	---

ACT.6 오르디, 하늘의 안식처	5
--------------------	---

CHAP.1	5
--------	---

CHAP.2	5
--------	---

CHAP.3	5
--------	---

CHAP.4	5
--------	---

ACT.7 에피스, 수정 왕국	5
------------------	---

CHAP.1	5
--------	---

CHAP.2	5
--------	---

CHAP.3	5
--------	---

CHAP.4	5
--------	---

ACT.0 모든 것이 시작된 곳	5
-------------------	---

CHAP.1	5
--------	---

CHAP.2	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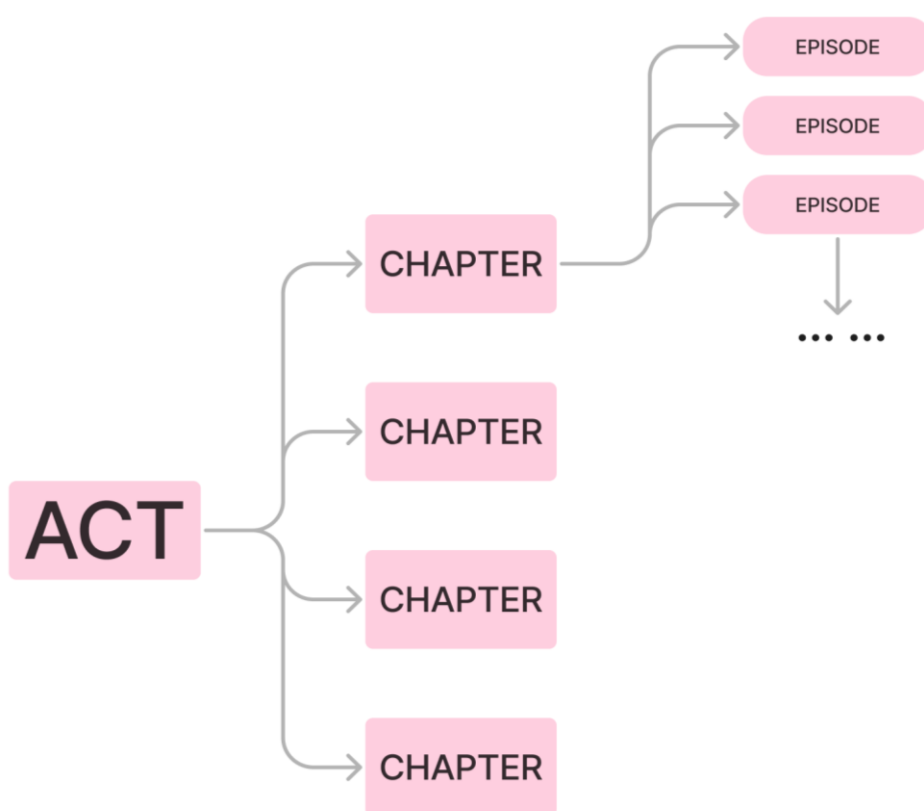
CHAP.3	5
--------	---

CHAP.4	5
--------	---


문서 개요

1) 스토리 계층 구조

계층	단위	내용
ACT	나라	가장 큰 계층으로, 나라 단위로 구성되는 스토리다.
CHAPTER	지역	나라 내에서, 각 지역에 따라 분류돼 진행되는 스토리다.
EPISODE	이야기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스토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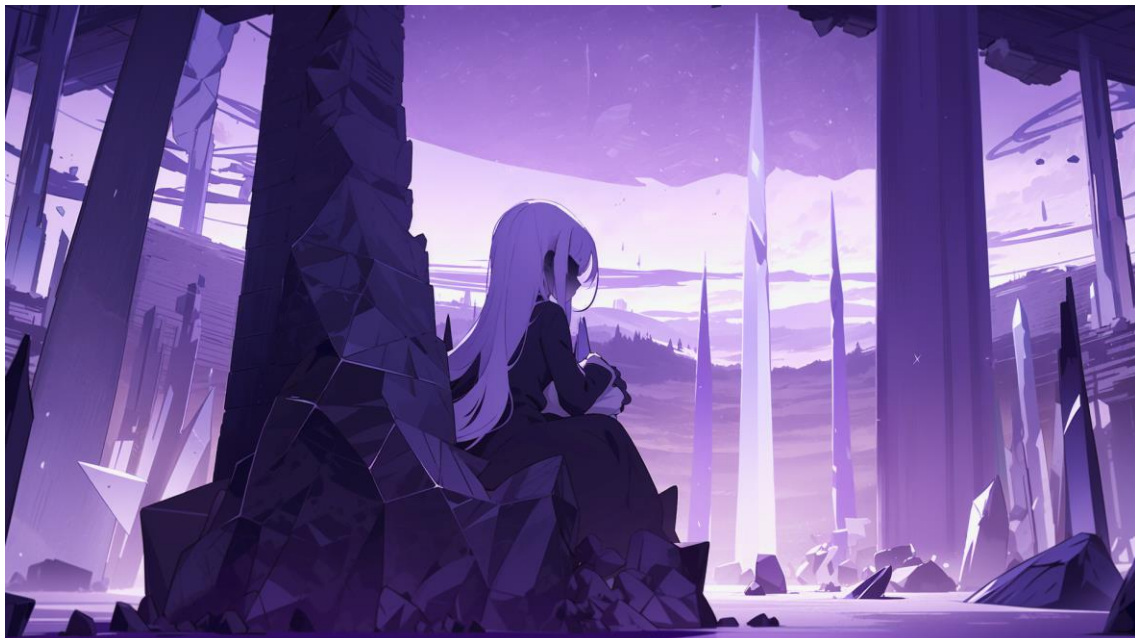


2) 문서 구성 항목

항목	내용
CONVERSATION	게임 내 NPC들의 대화를 전달한다.
DESCRIPTION	전자적 제3자의 시점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한다.
IMAGE SCENE	중요한 배경, 상황 혹은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전달한다.
SCREENSHOT	인게임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지 전달한다.
—  —	각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선으로 사용한다.

PROLOGUE

IMAGE SCENE



“

맞이하라. 이 땅 위의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



DESCRIPTION

탐욕적인 눈빛의 소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비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가 지나갔던 자리엔 어떠한 생명도, 소리도, 아득한 빛 한 줌도 허락되지 않았다.
식의 마녀, 바엔. 그런 이름이었다.
모든 것을 탐하던 소녀는 멈출 줄 모르고,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여왕의 탄생의 순간이었다.

SCREENSHOT



DESCRIPTION

평소와 같이 새 지저귀미 들리는 조용한 숲 ...이었을 테다. 어째서인지 오늘은 어울리지 않는 분주한 뒹굴음 소리가 숲을 가득 메우고 있다.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가보니, 검정색과 하얀색이 섞인 클래식한 색 조합의 메이드 복을 입은 **두 소녀**가 있었다. 소녀들은 숨이 가쁘게 숲 속을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마물들이 바짝 쫓고 있었다.

두 소녀의 이름은 **페트라**와 **프레이**, 그중에서 레몬 빛깔의 머리색을 가진 페트라는 급하게 뛰는 와중에도 가슴에 한 책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반복되는 마물의 출현에 프레이와 페트라의 체력이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가쁜 숨소리와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두 소녀의 상태를 대변했다.

“꾸엑!”

그때 페트라와 프레이를 뒤쫓던 마물 머리 위로 커다란 손가락이 떨어지며 흙먼지가 일어났다. 어느정도 흙먼지가 걷히고, 그곳에 있는건 적어도 1.7m에 달하는 **손가락**을 든 연녹색 머릿빛의 소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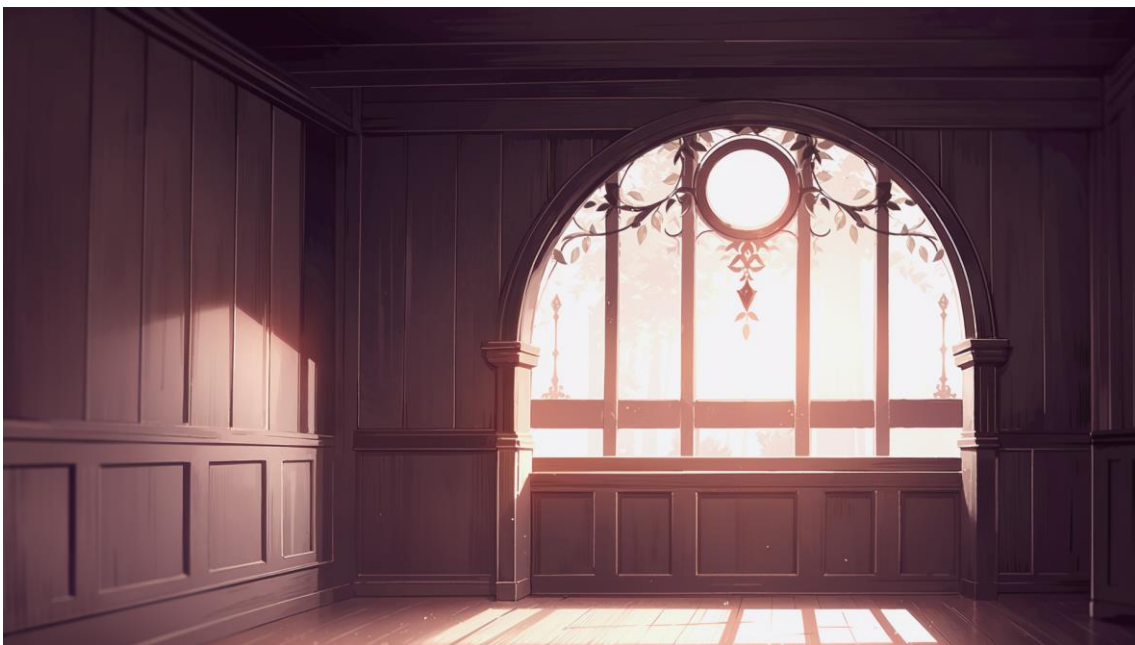
CONVERSATION



여러분 이쪽이에요! 제가 마물들을 따돌리고 올테니, 저쪽에 있는 **폐성당**으로 들어가세요!



IMAGE SCENE



CONVERSATION



 / 리아

저는 나가서 정찰을 보고 있을 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 프레이

페트라,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돼? 우리가 온전히 웨프를 불러올 수 있을까.



 / 페트라

그런 말씀 마세요, 프레이.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기에 모든 걸 걸어볼 수 밖에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요.



DESCRIPTION

페트라와 프레이는 소녀의 인도에 따라 한 **폐성당** 안으로 몸을 숨겼다. 폐성당 내부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깔끔한 편이었다.

낮게 깔린 먼지와 여기저기 자란 덩굴이, 한동안 이곳에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줬다. 몇 겹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햇빛들은 마치 이곳을 따스히 지켜 내는 듯 했다.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의 검은 머리의 소녀 프레이. 하지만 곧 페트라의 빛나는 눈과 울곧은 목소리에서 진정을 되찾는다. 어느새 눈을 감고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도 일말의 흐트러짐을 찾아볼 수 없다.

두 소녀는 숨을 고르고, 나지막히 **소환 의식**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빛이라곤 햇빛의 부스럼밖에 없었던 폐성당에는 찬란한 빛이 잠시 맴돌았다.

CONVERSATION



수정의 나라, 에피스
EPIS, THE LAND OF CRYSTAL

페트라 FETRA

쉐프는 월렛을 구하기 위한 **영웅**의 역할로서, 이세계로 부터 소환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월렛은 현재 식의 마녀, **바엔**의 현현으로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는 상태예요.

쉐프는 저희의 불완전한 소환으로, 기존 세계에 대한 기억과 갖고 있던 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렇지만 월렛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요리사는 기꺼이 힘을 빌려주어, 쉐프의 손발이 되어줄 거예요.

저희 **요리사**들을 지휘해서, 각 지역에 있는 바엔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녀로부터 저희의 세계를 구해주세요.



DESCRIPTION

깊은 잠으로부터 깬 쉐프의 눈 앞에는, 세 미소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쉐프가 정신이 깨는 걸 확인하자, 그녀들 중 두 사람은 앞으로 나와 예를 차린다. 자신들을 수정의 나라 **에피스** 소속의 요리사인 **페트라**와 **플레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들이 말하길, 현재 식의 마녀 바엔의 현현으로 인해 월렛은 위기에 빠졌고, 그녀에 대응하기 위한 요리사들이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는 페트라는 품 속에서 한 **레시피**로 묶여 있는 책을 꺼낸 뒤, 쉐프에게 건네 준다.

IMAGE SCENE



DESCRIPTION

그것은 페트라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품속에 숨겨뒀던 레시피였다. 그위에는 마물의 이름, 생김새와 그것들을 요리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쿵!”

폐성당 외벽을 거칠게 두드린 소리는 모두를 경직시키기에 충분했다. 일행이 창밖을 바라보니, 상당한 수의 마물들이 성당을 에워 싸고 있었다.

당황하는 것도 잠시, 페트라의 말에 프레이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는, 자신 옆에 놓여 있던 거대한 나이프를 가뿐히 든다. 페트라와 리아도 각자의 준비를 마치고선, 폐성당의 문을 향해 나아갔다.

금발의 소녀는 열리는 문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IMAGE SCENE



“
어서오세요, **쉐프**.
월렛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



순리만을 추종하던 숲의 정령들의 말로는
실바람에도 저항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이었다.
루니다 꽃은 만개할 날을 기다리며 당신을 품고 있다.

주요 등장 인물

01 수정의 나라, 에피스 EPIS, THE LAND OF CRYSTAL



NAME

페트라

FETRA

INFO

에피스 요리사 단장

02 수정의 나라, 에피스 EPIS, THE LAND OF CRYSTAL



NAME

프레이

PRAY

INFO

에피스 요리사 부단장

03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NAME

리아

LEAH

INFO

바소스 숲의 정령
바소스 요리사

04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NAME

리나

LINA

INFO

바소스 숲의 정령
바소스 요리사

05 미식가 EPICUREAN



NAME

카린

KARINE

INFO

미식가 서열 3위

06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NAME

벨로네프

BELONEPGH

INFO

바소스 (현) 숲의 여왕

CHAPTER 01

소란스러운 숲

CONVERSATION



 / 프레이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인데, 셰프. 분명 방금까지는 조용했는데 언제 이런 많은 적에게 포위당한 거지?

소환된 직후라 정신없을 상황이겠지만, 당장은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야. 셰프. 힘을 빌려줘.



 / 리아

바람이 속삭이는 숲은 실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적은 난생 처음이네요!

아앗……. 식화된 마물들이 이렇게 지성 있는 행동이라니……, 미약한 힘이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탬게요!



DESCRIPTION

페트라와 프레이의 자기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바깥에서는 식화된 마물들의 무리가 눈에 띈다. 셰프 일행이 눈치 챘을 때는, 이미 상당한 숫자의 마물들이 성당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다.

프레이는 불과 몇 분 전 깨어난 셰프를 데리고 도망치기는 무리라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인 자신의 키보다 약간 큰 커다란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페트라와, 옆에 있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연녹색 빛깔의 소녀 리아 또한 요리를 돕기 위해 발을 옮겼다.

특이하게도 요리를 지휘하는 셰프의 눈에는 마물들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지는 약점들의 출처는, 아까 페트라에게 받은 레시피에 있었다. 짧은 시간 얼핏 본 것에 불과하지만, 마치 본능적으로 레시피에 적혀있는 정보들을 체득했다. 셰프는 자신감 있게 그녀들을 지휘해, 무자비하게 적들을 쓰러트려 나갔다.

이윽고 마물들은 그 숫자가 무색하게 모두 쓰러졌다. 어려운 전투에서 손쉽게 이긴 그 녀들은 셰프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느꼈다. 그리고 그런 셰프를 향해 리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낸다.

SCREEN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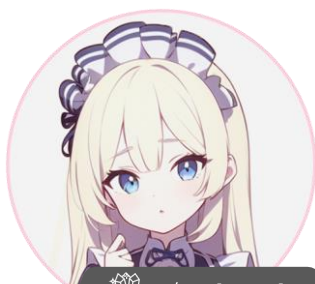
CONVERSATION



/ 리아

이것이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듣던 셰프의 힘
셰프, 행방불명 된 저의 **쌍둥이 언니**를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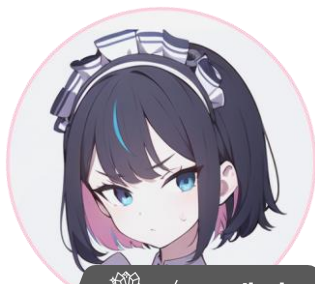
최근 숲의 나라 **바소스**에도 크고 작은 이변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숲의 정령, 그리고 바소스를 도와주세요.



/ 페트라

앞으로 여기서부터 **바엔**이 위치한 **에피스**까지는 상당한
길이의 모험이 될 거예요.

아마 숲의 여왕인 **벨로네프**, 그녀를 만나면 숲의 나라에
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 프레이

방금 셰프의 전투 지휘 실력을 확인했어. 분명 대단한 실
력이지만 아직 바엔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지도 몰라.

먼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셰프의 힘
과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CONVERSATION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리아
LEAH

아앗... 여러분들 잠시만요! 집이 어질러져 있어 먼저 청소를 하고 나올테니까,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잠깐이면 돼요.

이곳이 언니와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곧 잘하던 언니와는 달리 저는 할 줄 아는 게 얼마 없어요. 청소도 대부분 언니의 몫이었죠.

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언니가 놓고 간 이 **루니다** 꽃밖에는 없어요. 오직 바소스에서만 자라는 유명한 꽃인데,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활짝 봉우리를 틔우는 신비한 꽃이에요.



DESCRIPTION

전투를 마친 일행은 자신의 언니를 찾아달라는 리아의 사연을 듣는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리아의 언니, **리나**는 항상 그녀에게 하늘의 태양 같은 존재였다. 항상 제자리에서 자신을 비춰줄 것 같은 언니는 어느 날 자취를 감춘다. 꽃병에 꽂힌 루니다 꽃만을 남겨둔 채로

IMAGE SCENE



CHAPTER 02

더 깊은 곳으로

CONVERSATION



/ 리아

여기서부터는 저희 숲의 정령들이 사람들과 살고 있는 주요 터전인 **그들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 도시로 갔지만, 숲의 정령들은 남아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 숲의 정령

리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오늘 **벨로네프**님이 시키신 일들은 다 마무리 지은 거 맞지?

언니 일은 유감이지만, **순리**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있어.



DESCRIPTION

쉐프와 일행은 리아를 따라 바람이 속삭이는 숲의 더 깊은 곳에 위치한, 그들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한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숲이지만, 촉촉하고 음습하다는 느낌보다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드는 숲이다. 이곳에서는 사람들과 정령들이 얹혀 살았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다.

키 큰 나무 중간에 매달려 있는 목조 건물들과 그 건물로 이어지는 나무를 휘감는 나선형 계단은 훌륭한 건축 실력을 뽐내고 있다. 나무 밑엔 따스해 보이는 오두막과 바깥에는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화분들, 그리고 불을 지핀 캠프 파이어 흔적까지 남아 있다.

리아와 흡사한 복장을 한 **숲의 정령**들은, 처음엔 일행이 온 것도 눈치를 못 채고 각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리아를 발견한 한 숲의 정령은, 주변의 다른 정령들과 함께 리아에게 말을 걸어 온다.

SCREENSHOT



CONVERSATION



 / 리 아

에르넬, 이 분이 바로 그 전설 속의 **쉐프**님이야! 언젠가 바엔으로부터 이 월렛을 구해주실 영웅이라고.

바람이 속삭이는 숲을 정찰하다가,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



 / 숲의 정령

에르넬이라니……. 또 나에게 그 **이름**이란 걸 붙힐 셈이야? 우리 정령들에겐 그런 건 필요 없어.

설령 이 분이 전설의 셰프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순리**대로 움직여야만 해.



 / 프레이

…(숲의 정령이 간 뒤)… 아까 그 에르넬이란 친구는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는거야?

숲의 정령들은 원래 이렇게 예민한 건가.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 내가 들었던 바소스랑은 조금 달라.

CONVERSATION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리아
LEAH

바소스는 숲의 정령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숲의 나라예요. 저희 정령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사명을 갖고 태어나요. 이를 **순리**라 칭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리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요.

저와 언니의 사명은 항상 숲을 정찰하는 것이었어요. **바엔**이 나타나기 전까진 너무나도 평온한, 지루하다면 지루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현현 이후로, 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해졌어요.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그때부터였죠. 바소스 사람들과 숲의 정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니와 매일 수련을 하며 더 강력해지길 바랐어요! 언니가 사라지기 전까진



DESCRIPTION

리아는 숲의 정령 중 특이하게 태어났다. 모든 숲의 정령들은 자신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후회도, 심지어 죽음에 다다른 순간까지도 순리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정령 사회에서 이름이란 개념도 필요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신의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삶. 그것이 숲의 정령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리아가 머지 않아서 자신이 **독특한 개체**임을 깨달았다. 자신과 그녀의 언니에게 인간 사회에서 배운 이름이란걸 붙였다. 또 정찰대로 태어난 삶,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한 자신의 일상에 쉽게 지루함을 느꼈고, 가끔은 보는 눈을 피해 농땡이를 피기도 했다. 그녀에게 이런 정령의 삶은 마치 감옥과 같았다.

식의 마녀와 등장과 함께 그녀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떠났고, 많은 수의 정령들이 바엔과의 싸움으로 **희생**됐다. 이젠 다른 정령들의 눈을 피해 농땡이를 펼 일도 없어졌다. 정찰대인 그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언니와 함께 수련하며 힘을 기르는데 힘썼다.

SCREENSHOT



DESCRIPTION

쉐프와 일행은 리아를 도와 그들이 시작되는 곳을 함께 정찰한다. 드문드문 나타나는 마물을 처치하며, 숲의 끝에 다다랐을 때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땅.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망망대해한

따라서 이런 정령 사회에서 이름이란 개념도 필요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사명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신의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삶. 그것이 숲의 정령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리아가 머지 않아서 자신이 **독특한 개체**임을 깨달았다. 자신과 그녀의 언니에게 인간 사회에서 배운 이름이란걸 붙였다. 또 정찰대로 태어난 삶,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한 자신의 일상에 쉽게 지루함을 느꼈고, 가끔은 보는 눈을 피해 농땡이를 피기도 했다. 그녀에게 이런 정령의 삶은 마치 감옥과 같았다.

식의 마녀와 등장과 함께 그녀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떠났고, 많은 수의 정령들이 바엔과의 싸움으로 **희생**됐다. 이젠 다른 정령들의 눈을 피해 농땡이를 펼 일도 없어졌다. 정찰대인 그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언니와 함께 수련하며 힘을 기르기는 데 힘썼다.

IMAGE SCENE



DESCRIPTION

한 소녀가 숲 가운데 쓰러진 마물 곁에 쫓그려 앉아 있었다. 의아한 존재의 발견에 쉼프가 가까이 다가가자,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몸을 엄습했다. 본능적으로 쉼프의 몸이 멈춰 선다. 가까이서 본 소녀는 식화된 마물을 흡수하고 있었다. 흡수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행위. 마물과 닿은 소녀의 손을 따라, 어떠한 생명의 기운이 소녀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 행위를 본 쉼프는 압도적인 이질감과 공포감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이 소녀는 위험하다. ‘활짝’ 입맛을 다시는 소리와 함께, 소녀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다는 듯 입가를 닦았다.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녀. 그녀는 쉼프를 가만히 응시했다.

어느새 쉼프 앞에는 프레이와 페트라가 도착해, 둘 사이에서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프레이는 그녀를 미식가라 소개했다. 식화된 마물의 힘을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변형시키는 존재. 그들은 자신들을 미식가라 칭했고, 마물을 요리하는 요리사와는 다르게 식화된 마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였다.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 먼저 입을 떴 건 그 소녀였다.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 어느새 소녀는 프레이와 페트라를 지나쳐 쉼프의 몸에 코를 대고 있었다. 인지할 수조차 없는 속도…。 프레이와 페트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실감했다. 분홍색 머리 소녀는 여유롭게 뒤를 바라보며 얘기했다.

SCREENSHOT



CONVERSATION



 / 카 린

당신한테서 지금까지 맡아본 무엇보다도 맛있을 것 같은 향기가 나는걸?

우후훗. 내 소개가 늦었네. 내 이름은 카린. **미식가** 멤버 중 서열 3위를 맡고 있어. 잘 부탁해.



 / 페트라

이.. 이런 불경한 여자! 셰프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지 모르다고요!

당신 같은 위험한 존재가 이 숲에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곳은 바소스 중에서도 한적한 외곽 지역일 텐데요.



 / 카 린

흐으응... 정답이야. 꼬마 아가씨.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이 숲 너머,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만약 누군가를 찾는 상황이라면, 이 숲 너머가 가장 **가능성** 있지 않을까?

CONVERSATION



당신한테서 지금까지 맡아본 무엇보다도 맛있을 것 같은 향기가 나는걸?

우후훗. 내 소개가 늦었네. 내 이름은 카린. **미식가** 멤버 중 서열 3위를 맡고 있어. 잘 부탁해.



이.. 이런 불경한 여자! 쉼프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지 모르다고요!

당신 같은 위험한 존재가 이 숲에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곳은 바소스 외곽 지역이라, 신경 쓸 게 없을 텐데요.



흐으응... 정답이야. 꼬마 아가씨.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이 숲 너머,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만약 누군가를 찾는 상황이라면, 이 숲 너머가 가장 **가능성** 있지 않을까?

CONVERSATION



숲의 나라, 바소스
VASOS, THE LAND OF FOREST

벨로네프

BELONEPGH

수많은 우연들…….
당신이 이 세계에 소환됐다는 것.
특이 개체인 리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
숲의 비밀을 풀고 여기까지 당도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쓰러뜨렸다는 것…….
반복된 우연은 겹겹이 쌓여 마침내 **필연**에 도달했구나.

필연이라는 것은 곧 거스를 수 없는 순리.
오히려 순리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나였어.
순리에 어긋난 존재인 나는 곧 사라지겠지.

당신의 승리야, 쉘프. 억울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결국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
로젤리아님……. 당신이라면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을
내렸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따라 당신이 더 보고 싶어져요.



DESCRIPTION

벨로네프는 그대로 주저 앉아 허망 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어디부터 잘못됐던 걸까. 단순한 로젤리아를 향한 동경심으로부터 비롯된 부족한 힘으로 무리해서 바소스를 통치하려 했을 때? 아니면 바엔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길을 택했던 때일까. 그것도 아니면 쉘프가 도착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고 맞서 싸웠을 때일까.

그저 바엔으로부터 모든 걸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숲의 왕으로서의 지위도, 숲의 정령들의 자신을 향한 신뢰도, 그 모든 걸 저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전부인 숲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통제력에서 벗어난 숲은 잔존하던 바엔의 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잿빛으로 물들어갔다. 땅은 메마르고, 나무는 썩어 문드러지고, 꽃과 풀은 시들어갔다.

“

이런 **결말**은 이상하잖아.
바꿔볼게. 이 이야기의 **끝**을.

”

젓빛으로 변하던 하늘은 푸른 색을 되찾고, 스러져가던 땅 위의 생명체들은 다시 일어났다. 갈라지던 땅과 메말라가던 강이 다시금 제모습을 되찾을 때, 벨로네프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마치 로젤리아가 옆에 있었던 때처럼, 그녀는 순수했던 때의 정령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져 있었다. 매일 꿈으로만 그렸었던 장면, 숲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는 순간이었다. 저귀는 새소리와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눈을 떴다.



IMAGE SCENE



“반가워. 벨로네프. 그 모습이 훨씬 잘 어울리는걸.”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쓰러진 웨프 주변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과 정령들이 너나 할거 없이 바쁘게 모여들었다. 쓰러진 이유가 피곤함 때문이란 걸 깨달은 순간, 그의 코골이와 함께 모두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CONVERSATION



/ 벨로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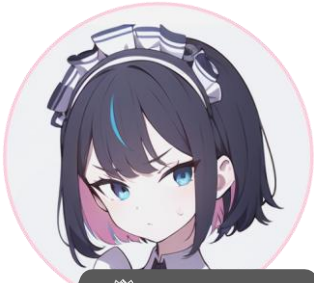
우후훗. 내 소개가 늦었네. 내 이름은 카린. **미식가** 멤버 중 서열 3위를 맡고 있어. 잘 부탁해.



/ 숲의 정령

이.. 이런 불경한 여자! 쉼프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지 모른다고요!

설령 이 분이 전설의 쉼프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순리**대로 움직여야만 해.



/

어머. 먼 에피스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쉼프? 이 향기 오래도록 잊지 않을게.

숲의 정령들은 원래 이렇게 예민한 건가.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 내가 들었던 바소스랑은 조금 달라.

